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회기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최 윤 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는 반응의도라는 상담자 반응의 내면적 과정을 중심으로 상담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또한 상담자의 반응의도가 매 상담회기별 효율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는 상담자가 보고한 바와 내담자가 지각한 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양자의 상담자 반응의도 지각은 어느정도 일치하는가? 양자의 각 반응의도 지각 빈도가 의의있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의도들인가? 상담자 반응의도 지각 양상은 초기, 중기, 종결기로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체계적 변화를 보이는가? 둘째, 상담 과정에서 지각된 상담자 반응의도의 지각양상과 그 상담 회기의 효율성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는 초기, 중기, 종결기로 구분했을 때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어로 된 상담회기평가질문지와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 척도를 제작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26명의 남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내담자와 5명의 현직 대학 상담실의 여성 상담자가 상담한 실제 상담사례에 이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지각과 상담자의 보고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지각되는 상담자의 반응의도가 "정보수집"과 "지지", "명료화", "감정인식", "통찰"의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자의 지각 양상은 이들 의도가 상담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담자의 반응의도임을 시사한다. 둘째, 내담자는 상담자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정보제공"과 "변화에의 회망격려", "자제격려"의도를 의의있게 많이 지각하는 반면 "명료화"와 "통찰", "저항극복"의도는 의의있게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회기에 따라 내담자에게 주로 지각되는 상담자의 반응의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지"는 어느 회기에나 전반적으로 많이 지각되며 이외에 초기에는 "정보수집"과 "명료화"의도가 많다가 중기에 들어서면 "감정인식"과 "통찰", "의문유도"가 주로 지각되며 종결기에는 "감정인식"과 "의문유도"가 주로 지각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넷째, 회기에 따라 상담자가 보고한 반응의도를 살펴보면 지지와 "명료화"의도는 어느 회기에나 많이 사용되고 이 이외에 초기에는 "정보수집"과 "감정인식"의도가 주로 사용되다가 중기에는 "통찰"과 "변화유도", 그리고 종결기에는 "통찰"과 "감정인식"의도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회기의 효율성과 상담자 반응의도 지각간의 관계에 있어 내담자에게는 "지지"와 "자제격려"의도 지각이 회기의 효율성 평가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자의 효율성 평가에는 "감정정화"와 "감정인식", "의문유도"의도의 지각이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회기의 효율성과 회기별 상담자의 반응의도간의 관계에 있어 내담자에게는 중기에 "지지"와 "자제격려"의도 지각이, 종결기에는 "감정정화"와 "저항극복"의도 지각이 회기의 효율성 평가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자에게는 초기에 "지지"와 "명료화", "감정정화", "감정인식"의도 사용이, 그리고 중기에는 "감정정화"와 "통찰"이, 그리고 종결기에는 "감정인식"의도 사용이 회기의 효율성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이창호, 1982). 그리고 상담자는 이 대면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최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의 이 대면 관계란 수많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특정 변인이 특별히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대별해 보

면 대체로 상담자 변인과 내담자변인, 상담자와 내담자간 상호작용 변인으로 구분이 된다. 내담자 변인이라면 내담자의 개인적 속성과 아울러 내담자의 주된 문제가 포함된다. 이와 대별되는 상담자 변인으로는 상담자의 개인적 속성(예 ; 성별, 성격, 신뢰성, 매력 등)을 비롯하여 이론적 접근방식, 기법, 상담중 행하는 반응등에 의한 영향이 포함된다. 그리고 같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도 상담 회기마다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양상은 변화를 보이는데 이에 의한 영향이 상호작용 변인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합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담 과정은 매우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현재까지 상담 과정과 상담 효과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상담 심리학 분야의 연구 노력에 비하여 뚜렷한 연구 결과들이 아직 미흡한 까닭은 상담 자체가 지닌 이러한 복잡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상담의 효과를 상담 회기가 여러 회 진행된 후 측정하는 사전-사후 측정방식으로 상담결과를 측정했기 때문에 상담 과정과 상담 효과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더해왔다(Orlinsky & Howard, 1978). 즉, 상담 회기가 거듭되면서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친 특정 변인의 효과는 누적, 혹은 약화되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특정 변인에 의한 효과를 이렇게 회기가 여러 회 진행된 후 측정한 까닭에 특정 변인과 그 효과간의 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사후 측정식 상담 결과 평가 방식으로는 매 상담 회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담 과정의 여러 변인이 일으키는 다양한 직접적 효과를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Stiles와 Snow(1984a)는 한 상담 회기의 즉각적효과(immediate outcome)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상담회기평가 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를 고안하였다. 그들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느끼는 회기의 깊이(depth)와 순조로움(smoothness) 및 상담 후의 긍정적 정서(positivity)와 각성도(arousal)로써 특정 상담 회기의 효율성

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Fuller와 Hill(1985)은 Stiles와 Snow(1984a)가 개발한 상담회기평가 질문지를 사용하여 상담 과정과 결과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들은 상담 과정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변인 중, 상담자의 반응에 내포된 의도라는 인지적 요인을 변인으로 상담 과정을 분석하였다. 즉, 상담자의 의도가,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로 하여금 특정개입(intervention)을 선택하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상담자의 인지적 요소(Hill & O'Grady, 1985)라고 보고 이를 통하여 상담의 내현적 과정을 밝혔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각각 지각된 상담자의 반응 의도와 상담회기평가 질문지로 측정된 그 상담 회기의 즉각적 효과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상담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상담 과정 분석은 상담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의도가 어떻게 변화되며 특정의도가 어느 시기쯤 집중적으로 주어질 때 효율적인지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Hill과 O'Grady(1985)는 상담자의 반응의도가 상담이나 심리 치료 과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자의 의도와 개입 선택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였다. 상담자는 즉각적인 자극 변인(immediate stimulus variable, 예 ; 내담자 행동의 관찰, 상담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임상적 가설, 전체적인 상담 계획, 특정 순간에 해결하려는 과업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와 함께 전반적인 자극 변인(예 : 내담자의 주된 문제, 상담자의 진단, 상담 환경, 호감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방대한 정보를 복잡한 방식으로 처리(compute)한다. 그리고 처리된 정보는 상담자의 상담 경험과 훈련을 기초로하여 후속 반응의 목표 혹은 의도로 발전한다. 이러한 경로로 발전된 의도는 특정 개입을 선택하도록 결정하는 지침이 되어 이 결정에 따라 상담자는 언어적인 것으로부터 비언어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개입을 선택하게 된다. 가령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감정을 깊이있게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경우, 상담자는 침묵, 직면(confrontation), 반영

(reflection), 자기개방(self-disclosure), 혹은 빈 의자기법(empty chair technique) 등 상담자의 개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물론 이때의 선택은 특정 기법에 대한 상담자의 친숙도나 선호도, 내담자의 행동 패턴이나 역동, 목표로하는 결과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의도가 특정한 반응 양식을 선택하게 하여 반응으로서 표현되면 내담자는 상담자의 개입에 반응을 한다. 내담자도 역시 상담자가 거친 경로와 똑같은 경로로 즉각적 자극 변인과 전반적 자극 변인을 통합하고 처리한다. 이 과정으로 내담자는 상담자의 반응의 의미를 파악하고, 상담자의 개입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도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그리고는 내담자 역시 어떤 반응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반응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상담자는 또다시 내담자의 반응을 근거로 하여 차후 시도할 의도를 결정하고 반응 양식을 조정, 선택하여 반응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 진행됨에 따라 상담자에게는 보다 많은 변인이 자극으로 입력되고 이에 따라 내담자의 반응 양식과 역동에 대하여 보다 일관성있고 안정된 개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어도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안정된 개념을 다같이 갖게 된다. 컴퓨터와 유사한 이 과정은 실제로는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요소(예: 감정, 대인역동 등)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미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 연구의 이론적 모델을 토대로 하여 상담자의 반응 의도를 중심으로 상담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상담중 외현적으로 나타난 상담자의 행동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명하는 역할을 하여 이후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상담자의 반응 의도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상담자가 어느 시기에 어떤 개입을

할 때 상담이 효율적일 수 있는지 시기적 적절성의 문제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상담자의 반응 의도와 상담 회기의 즉각적 효과간의 관계가 밝혀진다면 상담자들은 전체적인 상담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같은 기법으로 진행된 상담 과정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규명하여 상담 과정과 효과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매 상담 회기의 즉각적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내담자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회기의 즉각적 효과와 궁극적 결과를 관련지어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첫째 과제인 상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담자의 언어적 반응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담자와 내담자는 각각 상담자의 언어적 반응으로부터 어떠한 양상으로 반응의도를 보고하는가?

가. 상담자의 언어적 반응에서 추론되는 의도는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어느 정도 일치하고, 보고되는 빈도가 양자간에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는 의도가 있는가?

나. 상담 회기가 초기, 중기, 종결기로 진행됨에 따라 내담자에게 지각되는 상담자의 반응의도는 변화하는가? 그 변화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다. 상담 회기가 초기, 중기, 종결기로 진행됨에 따라 상담자가 사용했다고 보고하는 상담자의 반응 의도는 변화 하는가? 그 변화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상담자의 언어반응의 의도와 상담의 효율성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상담자가 언어로서 표현한 반응의도와 상담의 효율성간에는 상관이 있는가? 만약, 상관이 있다

면 어떠한 상관울 보이는가?

가. 상담자와 내담자에게서 보고된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의 깊이, 순조로움 및 상담 후의 긍정적 정서는 각각 어떠한 상관울 보이는가?

나. 같은 의도라도 그 의도가 사용된 시기마다 상담 회기 평가와의 상관은 다르게 나타나는가? 즉, 초기, 중기, 종결기로 상담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에 대한 평가간의 상관이 차이를 보이는가?

다. 상담 회기 평가의 세 요인에 대하여 각 요인별로 평정치가 높은 회기와 낮은 회기간에 상담자의 반응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는 의도는 무엇인가?

방 법

1. 내담자

본 연구에는 학생생활연구소(상담실)를 찾아 온 대학 1, 2, 3, 4학년 및 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내담자 26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18-27세, 성별 분포는 남학생 13명, 여학생 13명이었다. 이 26명의 내담자들은 개인 상담 후 각각 1회-11회(평균 3.5회)에 걸쳐 그들의 상담 회기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26명 중 11명의 내담자(남 3, 여 8)는 상담자의 반응의도를 추론하는 데에도 참여하였다.

26명의 내담자들의 주호소(main complaint)는 상담실을 찾는 대학생들이 흔히 호소하는 성격문제, 대인관계문제 및 적응, 진로문제 등이었다. 이들의 임상 진단 척도(SCL-90-R, 혹은 MMPI) 결과 및 상담자들의 면담 후 소견결과, 대인관계곤란(4명), 신체화장애(4명), 우울(3명), 성격장애(3명) 외에 불안,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청년기적 불안정(insecurity), 학교 적응 및 진로문제, 정신분열증(각 2명), 기타 강박장애, 공포장애(각 1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회기평가 질문지로 자신의 상담 회기를 평가한 26명의 내담자 중 정신병적 장애를 가진 내담자

를 제외하고 녹음과 실험 참여에 동의한 11명(남 3명, 여 8명)의 내담자는 상담 회기 평가외에 상담자의 반응의도 평정에 1회 이상씩 참여 하였고 그들 중 1회 면접으로 충분하여 상담을 종결한 내담자(3명)와 중도에서 탈락(2명) 혹은 녹음을 거부(1명) 한 내담자를 제외한 5명(남 2, 여 3)은 첫 상담부터 성공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상담자의 반응의도 평정에 참여하였다.

첫 상담부터 종결시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5명 내담자의 인적 사항과 상담동기, 주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례 A-22세, 여, 우울, 무력감, 가족에 대한 적대감, 대인관계형성곤란.

B-20세, 여, 정체감의 혼란, 불안.

C-20세, 여, 우울, 무력감, 대인관계형성 곤란, 위축, 소극적.

D-27세, 남, 주의산만, 자신감결여, 우울, 소화불량, 근육통등 정신신체적 증상.

E-25세, 남, 전환중세, 턱밑에 군살이 붙은 느낌, 머리에 뿔이 돋고 엉덩이가 불어나는 느낌, 때로 혀가 굳고 눈동자 적임, 불안.

2. 상담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상담실등에서 5년이상 경험을 쌓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5명의 여성 상담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 중 2명은 미국에서 임상심리 분야로, 3명은 서울대학교 혹은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분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상담 회기 평가에만 참여한 1명은 서울대학교 그리고 반응의도 유목 평정과 상담 회기 평가에 참여한 4명 중 3명은 이화여대, 1명은 서울시립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상담자들이었다. 이들의 연령분포는 30-40세이고 상담경력은 5-15년이었으며 모두 특정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에 따라 대처하는 절충적 접근(eclectic approach)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5명의 상담자는 모두 4-30회기

씩 자신의 상담 사례에 대하여 회기의 효율성을 평가하였고 이들 중 4명은 상담 회기 평가와 함께 2-23회기씩 상담자 반응의도 평정에도 참여하였다.

3. 도 구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담자의 반응의도를 분석하고 그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적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상담 회기의 즉각적 결과는 상담회기평가 질문지를 통하여 그 효율성을 알아보았다. 한편 내담자의 문제와 증상의 변화, 그리고 상담의 궁극적 결과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R-90-R)를 통하여 알아 보았으나 상담자에 따라 다면적인성검사(MMPI)를 보조자료로 사용 하기도 하였다.

1)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적도

상담 중 나타난 상담자의 언어 반응에 대하여 그 의도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들에게 지각된 상담자의 반응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적도를 사용하였다. 이 유목적도는 Hill과 O'Grady(1985)가 개발한 19개 List of Therapist Intentions를 오경희(1986)가 연구자외에 영문학자 1명,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전공석사 각 1명, 그리고 영문학 전공 석사 미군인 1명이 참여하여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현직 대학 상담실 상담자 4명에게 자신의 상담사례 내용으로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한편 예비 연구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5명의 대학생 내담자들에게도 각각 2회기씩 자신들의 녹음된 상담 내용을 상담 직후 되돌려 들으며 의도 유목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으로써 실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분야 전문교수 1명의 자문을 거쳐 의도 유목의 명칭을 약간 수정하고 유목의 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적도를 확정하였다. 이 유목적도는 상담의 여러 이론적 접근방식, 기법을 총 망라하여 상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19개 상담 유목적적인 유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유목

별 네 상담자간 일치도는 상관계수 .79-.90이었다. 다음은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적도에 관한 정의이다.

<상담자의 반응 의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로 포함시킨 19개 유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범위 및 계획수립 : 상담의 목표설정과 전체적인 상담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반응. 상담목표의 설정, 목표도달 방법, 상담의 규칙에 관한 설명, 상담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심어주기 위한 반응.
2. 정보수집 : 내담자의 과거 경험, 현재상태, 미래계획 등에 관한 사실들을 알아보기 위한 반응.
3. 정보제공 : 내담자에게 실질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를 교육시키고 올바르게 않은 개념이나 정보를 시정하기 위한 반응. 상담자의 행동이나 그 이유, 상담시 적용하는 기법을 설명하려는 반응.
4. 지지 :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반응. 내담자 자신이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껴, 상담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반응.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신뢰감, 친밀감(rapport)을 증진시키기 위한 반응.
5. 주제의 방향제시 : 내담자가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거나 당황하고 이야기가 산만할 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반응. 관련없는 이야기에서 맴돌고 있을때 이야기의 주제를 바로잡거나 주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그것을 논의하는 반응.
6. 명료화 : 내담자나 상담자가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때, 즉 애매하고 불완전 하거나 혼돈을 주거나 모순되거나 잘 들리지 않을 때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반응으로 그에 대해 상담자가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하거나 또는 내담자에게 보다 분명한 설명을 해주도록 요구하는 반응.
7. 변화에의 희망 격려 : 변화는 가능하며, 실제로 그 변화가 내담자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반응.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담자는 도울 것이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 사기를 진

작시키는 반응.

8. 감정정화 : 긴장감이나 불행한 기분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부정적 감정이나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도록 돕기 위한 반응

9. 불합리한 생각지적 : 비논리적이거나 불합리한 생각, 태도등을 지적하는 반응

10. 불합리한 행동 지적 : 내담자의 부적절하거나 부적응적인 행동 혹은 그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반응 내담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피곤한 신경전을 지적하는 반응.

11. 자제격려 :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충동을 통제하는 분별력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한 반응 자신이나 자기 행동에 대하여 외적 상황을 탓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반응.

12. 감정인식 : 내담자가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반응. 내담자로 하여금 기저의 감정 혹은 숨겨진 감정을 인식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 감정들을 경험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

13. 통찰 : 생각이나 태도, 행동, 감정의 밑에 깔린 원인, 무의식적 동기를 이해하도록 격려하는 반응.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내담자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도록 돕는 반응.

14. 변화유도 : 자신이나 타인에 대하여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한 기술, 행동, 생각을 개발, 확립시키기 위한 반응 적응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행동방식, 기준을 세우도록 돕는 반응. 내담자가 자신을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을 평가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반응.

15. 변화강화 :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변화된 행동, 생각, 감정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거나 언급하는 반응.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한 새로운 행동방식을 격려하는 반응.

16. 저항극복 : 내담자의 변화나 상담의 진전에 방해가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반응. 이전에 상담 약속을 어겼거나 이후 상담을 그만두려 할 때 그에 관해 의논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반응.

17. 의문유도 : 내담자가 현재의 자기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도록 하는 반응. 기존의 신념이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그것이 타당하고, 적절하고, 현실적인지를 검토하도록 돕기 위한 것. 내담자가 이제까지의 행동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돕기 위한 반응.

18. 관계검토 : 원만한 상담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응. 각 단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존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 내담자의 과거 경험 때문에 생겨난 인간 관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반응.

19. 상담자의 방어 : 상담자가 자신을 방어, 보호하고, 자신의 긴장감이나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반응. 내담자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의도로 상담자가 자기 견해를 설득, 주장하는 반응.

2) 상담회기평가 질문지

상담 회기의 효율성은 상담회기평가 질문지로 평가하였다. 상담회기평가 질문지는 Stiles와 Snow (1984b)에 의해 개발된 24개 양극 형용사쌍 (semantic differential format)으로 구성된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Form, 3)을 연구자가 한국어로 제작하였다. 한국어로 제작된 상담회기평가 질문지는 회기의 깊이(depth)와 순조로움(smoothness)을 측정하는 회기 자체에 대한 평가 차원과 상담후 긍정적 정서(positivity)와 각성도(arousal)를 측정하는 상담적후 정서에 대한 평가차원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각 차원에 2개 요인씩 총 4개 요인에 대하여 5개 양극 형용사쌍이 각각 제시되어 총 20개 양극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다. 이 질문지는 양극 형용사쌍 각 문항을 7점 척도로 제시하여 상담회기의 효율성을 평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질문지 제작 과정에서 연구자는 예비 연구로써 각 요인에 대하여 6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을 초안하고 이를 64회기의 개인 상담 사례에서 실제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평정하도록 의뢰하였다. 또한 E여

자대학교의 청년 심리학 수강생 213명에게 대학생들이 흔히 겪는 이성 관계에 관한 상담 사례 중 실제 상담내용의 일부를 약 15분간 들려준 후 이 상담 회기의 효율성을 상담회기평가 질문지로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 나온 자료를 Varimax Matrix의 방식으로 요인 분석하여 요인가(factor loading)가 .60보다 큰 문항을 선택하여 각 요인에 5개 문항씩을 확정하였다.

이 질문지의 타당도는 100회기의 실제 상담 사례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각각 평가한 상담회기평가 질문지의 20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상담회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 깊이와 순조로움이라는 별개의 요인이 존재하며 이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평정할 수 있는 공통된 요인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질문지에 포함되어있는 10개 양극 형용사쌍은 회기의 깊이와 순조로움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문항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상담후의 정서차원은 긍정적 정서와 각성도의 두 요인으로 대별되었다. 그러나 각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질문에 사용된 3개 형용사쌍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공통적으로 같은 요인을 평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기의 깊이와 순조로움, 상담 후의 긍정적 정서-세 요인으로써 상담의 즉각적 효과를 평정하였다.

이 세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95로서 이 질문지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간이 정신진단 검사(SCL-90-R)
- 4) 다면적 인성검사(MMPI)

4. 절차

본 연구는 첫 상담을 시작하기 3-7일 전에 간이 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내담자의 주된 문제와 증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녹음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실제 상담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녹음을 하고 한 회기의 상담이 끝나면 곧바로 상담회기평가 질문지

문지로서 그 상담 회기를 평가하였다. 상담 회기의 평가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다같이 각각 평가하되 응답내용은 서로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작성하여 별도로 준비된 봉투에 넣어 봉해서 연구자에게 제공되었다. 상담 당시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상담이 끝난 즉시 녹음된 상담내용을 되돌려 들으며 평정해야 한다는 Kagan(1975, 1984)의 제안에 따라 상담 직후 곧바로 녹음된 내용을 들었다. 그러면서 매 상담자의 반응에 대하여 상담자와 내담자는 각자에게 지각된 반응의도를 각각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척도로서 평정하였다.

상담자 반응의도의 단위는 상담자가 반응을 시작하여 내담자의 반응이 나오기 직전까지 말한 내용을 하나의 반응으로 간주하고 반응 순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일치하도록 주의하여 반응의도를 평정하였다.

Mintz와 Luborsky(1971)는 많은 상담의 과정 연구가 전회(wholesession)보다는 부분적 표집(brief segments)에 기초를 둔 것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적 표집 방법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에 내재하는 중요한 측면을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자연스런 임상단위인 전회를 분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여 매 상담 회기를 녹음하고 전체를 되돌려 들으며 상담자가 보인 언어적 반응의도를 빠짐없이 평정하되 "응" 등의 시인(acknowledgement) 반응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매 회 상담회기평가 질문지와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척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고 상담이 종결되면 내담자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정하기 위하여 간이정신진단 검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담자의 반응의도의 유목 평정에 있어 평정자간 일치율을 위하여 상담자들은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녹음된 상담 내용을 들으며 2회의 훈련기간을 가졌다. 내담자에게는 첫 상담이 끝난 직후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척도에 있는 각 유목에 대한 설명을 상담자와 함께 읽도록 하였다. 그런 후 녹음

된 상담내용을 들으며 상담자의 첫 3-5개 반응에 대하여 내담자가 반응의도를 추론하고 유목을 선택한 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에 대하여 이미 훈련된 상담자가 함께 의논하는 형식으로 내담자를 훈련하였다. 또한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척도에 대한 설명지는 내담자가 가져가 숙지해 오도록 하였다.

상담기간은 1987년 7월부터 1987년 1월까지였으며 상담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였다.

5. 자료처리

본 연구는 100회기분의 상담 사례에 대하여 상담회기 평가를 하여 상담회기평가 질문지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각 내담자에게 실시된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 평정 사례 47회기분의 상담 사례를 전회(whole session) 분석하였다. 이 중 초기, 중기, 종결기에 자주 사용되는 상담자 반응 의도의 유목과 상대적 빈도를 비교하여 의도 유목과 상담의 효율성간 상관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8회 이상 지속된 상담사례에서 각 6회기씩 표집하였다. 표집된 회기는 첫 1, 2회기가 초기로, 마지막 회와 그 직전 회기 2회기가 종결기로, 그리고 이 사이의 회기가 무선적으로 2회씩 중기로써 포함되어 각 2회분씩 묶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 상담 사례는 6회로써 종결이 되었는데 이 사례에 대하여서는 상담자가 단기 상담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사례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첫 1회, 마지막 1회를 초기와 종결기에, 그리고 그 사이 회기에서 1회기를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총 3회기 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총 47회기 자료 중 42회기에 해당하는 상담 사례는 초기, 중기, 종결기에 각 9회씩 총 27회기분이 회기에 따른 변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단기 상담 과정 분석에 적절한 회기수는 7-12회, 6-20회, 12-25회(Mann, 1973; Strupp & Hadley: 1979)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추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Trscey와 Ray(1984)는 6-20회를 상담 회기에 따른 상담 과정의 변화 분석에 적절한 회기 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6회보다 짧

으면 위기 상담(crisis counseling)을 대표하고 20회보다 길어지면 장기상담을 대표하는 회기수라고 판단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 과정의 분석에 6-20회로서 종결된 상담사례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상담회기평가 질문지의 타당도는 요인 분석(factor analysis)하여 산출된 요인가(factor loading)로서 검토하였고 신뢰도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로서 검토하였다.

상담자의 반응의도는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지각된 각 유목의 빈도를 각각 총 반응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여 그 평균지각율(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즉, 평균 지각율=개별의도의 빈도/총의도빈도 공식으로 산출되었다. 각 의도 유목의 상담자와 내담자간 일치율은 반응순위마다 일치하게 지각된 빈도를 총 반응수에 대한 비율 즉, 의도지각일치율=개별의도의 일치된 빈도/상담자의 개별의도 빈도로써 산출하였다. 한편 상담자와 내담자간 지각의 차는 유목별로 평균지각율의 차를 t-검증하여 의의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초기, 중기, 종결기의 반응의도는 각 시기별로 평균지각율(M)과 표준편차(SD)를 별도로 산출하였다. 초기, 중기, 종결기 각각에 대하여 산출된 평균지각율은 F-검증과 t-검증을 통하여 각 시기에 지각되는 의도의 비율이 의의있는 차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상담자의 반응의도가 회기의 효율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반응의도 유목의 평균지각율과 회기의 길이, 순조로움 및 긍정적 정서의 평정 점수를 피어슨 적률상관계수(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를 계산하였다. 또한 초기, 중기, 종결기에 대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회기진행에 따라 상관도는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는 각도를 달리하여 47회기 중 각 요인별로 상담 회기의 효율성이 높게 평정된 회기와 낮게 평정된 회기 8-13회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회기에 사용된 각 의도 유목의 평균 지각율이 의의있는 차가 있는지 t-검

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pack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반응의도를 중심으로 상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상담 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담자의 반응의도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상담에서 주로 지각되는 상담자의 반응의도는 어떠한 것들인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초기, 중기, 종결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에 주로 지각되는 의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시기에 지각되는 반응의도가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회기진행에 따른 상담자의 반응의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담자의 반응의도를 분석한 후에는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회기평가 질문지를 통해 평가된 회기의 효율성 평정 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의 효율성간의 관계는 초기, 중기, 종결기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같은 의도라도 초기, 중기, 종결기 중 특정 시기에 빈번히 사용될 때 상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A.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보고된 상담자의 반응의도 분석.

1. 내담자와 상담자에게서 보고된 상담자의 반응의도 분석.

우선 상담자의 언어적 반응으로부터 추론된 반응의도가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담자와 상담자는 각 의도를 어느 정도 일치하게 지각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각 의도에 대한 평균지각율을 구하여 상담자 반응의도 지각 양상을 살펴 보았다. 또한 양자의 평균지각율의 차를 검토함으로써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체계적으로 더 많이 혹

은 더 적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실제 상담 사례 47회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제시한 것이 표 1이다.

표 1에서 지각일치율을 보면 “지지”, “정보수집”, “명료화”의도에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지각일치율이 높고 “상담자의 방어”, “불합리한 행동지적”, “자제격려와 저항극복”의도에 일치율이 낮았다. 이는 상담자의 의도에 따라 내담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일치율이 높은 의도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흔히 주고 받는 익숙한 의도이거나 전형적인 전달 양식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인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오경희(1986)의 연구에서 평가의도에 전형적 전달양식이 있음을 근거로 한 잠정적 해석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좀더 이루어진 후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내담자의 평균지각율을 살펴보면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게는 상담자의 “정보수집”과 “지지”, “감정인식”, “명료화”, “통찰”, “의문유도”의도가 주로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uller와 Hill(198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나 그들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통찰”과 “의문유도”의도가 더 많이 지각된 반면, “주제의 방향 제시”의도는 그들 연구보다 덜 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에서 상담자의 평균지각율을 보면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명료화”와 “정보수집”, “통찰”, “지지”와 “감정인식”의도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Fuller와 Hill(1985)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평균지각율이 가장 높은 5개 반응의도 항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주로 위의 5개 반응의도를 가지고 접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자의 각 의도에 대한 평균지각율의 차이를 t-검정한 것이 표 1에 제시된 t값이다. 이 결과를 보면 “정보제공[t(92)=3.20, P<.01]”, “명료화[t(92)=4.26, P<.001]”, “변화에의 희망 격려[t(92)=2.71, P<.01]”, “자제격려[t(92)=

3.50, $P < .001$ ”, 통찰[$t(92) = 2.43, P < .05$]”과 “저항극복[$t(92) = 2.74, P < .01$]” 의도에 대하여 평균지각율이 유의있는 차를 보였다. 즉, 내담자는 상담자에 비해 “정보제공”, “변화에의 희망격려”, “자제격려”의도는 평균적으로 더 많이 지각하는 반면 “명료화”나 “통찰”, “저항극복”의도는 평균적으로 더 적게 지각한다. Fuller와 Hill(1985)의 연구

결과에서는 “지지”와 “명료화”, “자제격려”, “저항극복”의도에 평균지각율이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 연구와는 달리 “지지”의도는 양자의 평균지각율에 유의있는 차가 없는 반면, “정보제공”, “변화에의 희망격려”, “통찰”의도에 대하여 유의있는 차가 나타났다.

표 1.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에 대한 내담자와 상담자간 지각일치율, 각 반응의도 유목 평균지각율(M) 표준편차(SD) 및 양자의 평균지각율의 t-검증(t)

의도유목	일치율	내 담 자		상 담 자		t
		M	SD	M	SD	
상담범위 및 계획수립	.27	.02	.02	.02	.02	.01
정보수집	.41	.12	.11	.12	.09	.10
정보제공	.27	.05	.07	.01	.03	3.20**
지지	.54	.11	.11	.10	.08	1.36
주제의 방향제시	.14	.03	.03	.04	.03	1.64
명료화	.32	.10	.08	.15	0.7	4.26***
변화에의 희망격려	.30	.05	.04	.03	.03	2.71**
감정정화	.11	.03	.04	.04	.04	.98
불합리한 생각지적	.29	.05	.04	.05	.05	.03
불합리한 행동지적	.09	.02	.04	.02	.05	.74
자제격려	.09	.03	.05	.02	.02	3.50***
감정인식	.29	.11	.08	.11	.08	.40
통찰	.24	.09	.08	.12	.11	2.43*
변화유도	.22	.06	.05	.07	.06	1.17
변화강화	.21	.03	.03	.03	.05	.79
저항극복	.09	.00	.01	.01	.02	2.74**
의문유도	.21	.08	.07	.07	.05	1.43
관계검토	.18	.02	.03	.01	.02	1.38
상담자의 방어	.00	.00	.01	.00	.01	.06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차는 Fuller와 Hill(1985)의 연구가 4인의 내담자와 4인의 상담자가 돌아가며 1회기씩 만나 상담을 한 준상담(quasi-counseling) 사례 16회기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것이고 본 연구는 1회기로 종결된 상담사례로부터 11회 까지 지속되고서 종결된 사례까지 다양한 실제 상담사례가 포함되었으므로 자료를 얻은 방법의 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같은 의도라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전달 양식이나 이를 지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화적 요인도 연구 결과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일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해주는 연구 결과들이 아직 미흡한 까닭에 좀더 관련 연구의 결과들이 밝혀질 때까지는 확실한 해석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회기 진행에 따른 상담자의 반응의도 변화 분석.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상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도는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47회기

의 상담 사례 중 단일 회기로 종결 혹은 중단된 사례 5회기분을 제외하고 6회이상 지속된 후 종결된 사례 42회기분 자료 중 초기, 중기, 종결기에 해당하는 회기를 선택, 각 9회씩 총 27회기의 자료를 내담자와 상담자 각각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내담자에게 지각된 회기 진행별 상담자 반응 의도 변화.

여기에서는 상담이 초기에서 중기, 종결기로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내담자에게 지각되는 상담자의 반응의도는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인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기, 중기, 종결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내담자가 평정한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 각각의 평균지각율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그 지각율이 회기간에 유의있는 차가 있는지 F값을 구하여 표 2-1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내담자에게 초기에는 “지지”, “정보수집”, “명료화”의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각

되었다. 초기 상담의 목표가 내담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제시하고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장호, 1982)이라고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가 초기에는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가 제시한 내용을 명료화하며 내담자를 지지하려는 반응을 많이 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 함을 반영한다.

그리고 표 2-1에서 보면 중기에는 내담자에게 상담자의 “정보수집”과 “지지”, “감정인식”, “통찰”, “의문유도”의도가 많이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여 하려는 의도가 많아지고 자기 행동의 동기나 의미에 대하여 통찰을 하게 하려는 의도가 상담자에게 많아짐을 내담자가 지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표 2-1에서 보면 종결기에 들어서서는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반응에서 “감정인식”, “지지”, “의문유도”의도를 주로 지각하였다. 이는 상

표 2-1. 내담자와 회기별 반응의도 평균지각율(M), 표준편차(SD) 및 각 회기의 평균지각율 F-검증

의도유목	초기		중기		종결기		F
	M	SD	M	SD	M	SD	
상담범위 및 계획수립	.02	.02	.01	.02	.01	.01	.169
정보수집	.17	.13	.16	.13	.08	.08	.155
정보제공	.04	.07	.02	.03	.08	.11	.156
지지	.18	.18	.14	.10	.13	.12	.37
주제의 방향제시	.06	.03	.02	.03	.03	.03	4.17**
명료화	.14	.04	.06	.04	.06	.06	7.00**
변화에의 회망격려	.04	.04	.05	.05	.04	.03	.23
감정정화	.02	.02	.03	.03	.03	.03	1.11
불합리한 생각지적	.03	.03	.07	.05	.04	.02	2.40
불합리한 행동지적	.01	.02	.02	.03	.02	.03	.26
자제격려	.04	.05	.04	.06	.04	.04	.04
감정인식	.06	.06	.12	.07	.15	.07	4.27*
통찰	.03	.04	.09	.07	.07	.06	2.15
변화유도	.04	.02	.07	.06	.06	.07	.98
변화강화	.02	.02	.00	.01	.04	.04	5.63**
저항극복	.10	.02	.00	.00	.00	.01	.74
의문유도	.08	.07	.08	.06	.11	.08	.42
관계검토	.01	.01	.02	.03	.02	.03	.90
상담자의 방어	.00	.00	.00	.00	.00	.01	.63

* P < .05

** P < .01

담 종결시 내담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 방식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며 상담을 종결해 가는 것으로 내담자가 지각함을 반영한다. 그리고 전 회기를 통하여 “지지”의도는 계속적으로 내담자에게 많이 지각되는데 이는 상담자가 따뜻한 상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담자와 촉진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내담자에게 지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초기와 중기, 종결기에 내담자가 지각된 상담자의 반응의도 지각율에 유의미한 차가 있는지 알아본 것이 표 2-1에 F값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주제의 방향제시[F(2, 24)=4.17, P<.05]”, “명료화[F(2, 24)=7.00, P<.01]”, “감정인식[F(2, 24)=4.27, P<.05]”, “변화강화[F(2, 24)=5.63, P<.01]” 의도에 유의미한 차가 검출되었다. 즉, “주제의 방향제시”와 “명료화”, “감정인식”, “변화강화”의도는 내담자에게 초기와 중기, 종결기에 지각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다.

F-검증으로써 회기에 따라 변화하는 상담자 반응의도의 대체적인 지각 양상은 살펴 보았으나 상담자의 각 반응의도가 어느 시기에 특히 서로 차이 있게 내담자에게 지각되는지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기와 중기, 종결기를 각각 짝지어 t-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에서 내담자의 평정결과를 보면 내담자는 “주제의 방향제시[t(26)=2.67, P<.05]”와 “명료화[t(26)=3.89, P<.001]”, “통찰[t(26)=2.15, P<.05]” 그리고 “변화강화[t(26)=2.89, P<.05]”의도는 평균지각율이 초기와 중기 사이에 유의미한 차를 보였다. 즉, “주제의 방향제시”와 “명료화”, “변화강화”의도는 초기에 비하여 중기에 유의미하게 덜 지각되었다. 반면 “통찰”의도는 초기에 비하여 중기에 유의미하게 많이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에게 초기에는 문제제시의 방향을 지지하고 내담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명료화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함을 반영한다. 그리고 “변화강화”의도가

중기보다 초기에 많이 지각되는 것은 상담에의 기대와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희망을 주려는 상담자의 지지가 내담자에게는 상담 개시 전 자신이 이미 시도한 변화 노력을 강화하는 반응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통찰”의도는 초기보다는 중기에 주로 지각되는데 상담의 주된 목표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의 의미를 파악하고 통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상담자의 이러한 의도가 중기에 들어서 내담자에게 잘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2. 내담자의 회기별 반응의도 평균지각율의 t-검증

의도유목	초기/ 중기	중기/ 종결기	초기/ 종결기
상담범위 및 계획수립	.92	.89	1.89
정보수립	.15	1.52	1.76
정보제공	1.08	1.67	.86
지지	.58	.27	.75
주제의 방향제시	2.67*	.36	2.39*
명료화	3.89***	.04	3.02**
변화에의 희망격려	.43	.65	.22
감정정화	1.63	.40	1.00
불합리한 생각지적	1.69	1.72	.08
불합리한 행동지적	.72	.17	.54
자세격려	.22	.01	.28
감정인식	1.99	.87	2.97**
통찰	2.15*	.46	1.62
변화유도	1.5	.07	1.22
변화강화	2.80*	3.12**	1.29
저항극복	1.00	1.00	.69
의문유도	.17	.83	.66
관계검토	1.29	.06	1.27
상담자의 방어	1.00	.50	1.00

* P<.05

** P<.01

*** P<.001

“변화강화[t(26)=3.12, P<.01]”의도는 중기와 종결기 사이에서도 내담자에게 지각된 평균지각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내담자는 중기보다는 종결기에 상담자가 이 의도를 가진 반응을 유의미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 결과로써

종결기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강화하는 반응을 어느 시기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내담자에게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와 종결기에 내담자에게 지각된 각 반응의도의 평균지각율을 비교한 결과 “주제의 방향제시[t(26)=2.39, P<.05]”와 “명료화[t(26)=3.02, P<.01]”, “감정인식[t(26)=2.97, P<.01]”의도에 유의있는 차이가 있다. “주제의 방향제시”와 “명료화”의도는 초기에 많이 지각되고 “감정인식”은 종결기에 유의있게 많이 지각되었다.

이는 초기에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주제의 방향제시”와 “명료화”의도를 가진 반응을 많이 하면서 상담에 접근하고 종결기에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사용함을 내담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려는 상담자의 의도는 내담자에게 초기에는 인지되지 않고 종결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그 의도를 잘 감지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로써 내담자에게 지각된 상담자의 반응의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주제의 방향제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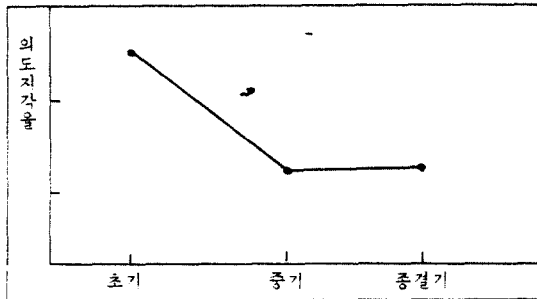


그림 1-1. 내담자의 “주제의 방향제시”“명료화”의도지각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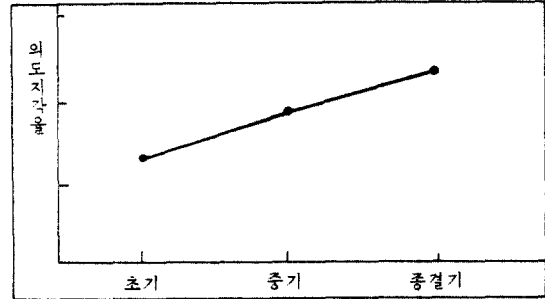


그림 1-2. 내담자의 “감정인식”의도지각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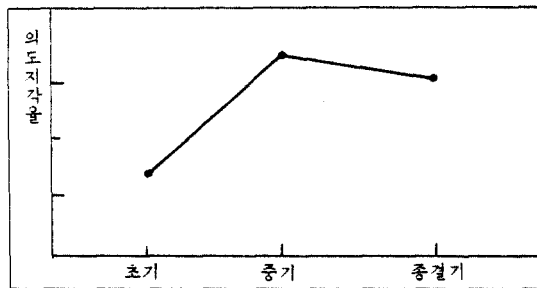


그림 1-3. 내담자의 “통찰”의도지각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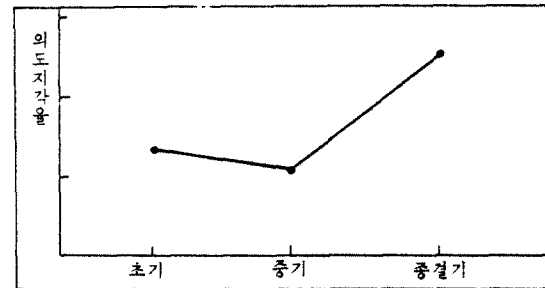


그림 1-4. 내담자의 “변화강도”의도지각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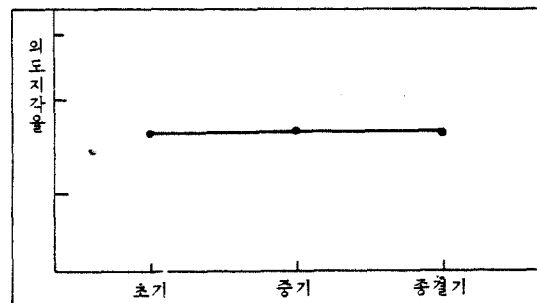


그림 1-5. 내담자의 기타 의도지각변화

“명료화”의도는 초기에 많이 지각되다가 중기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중기 이후 종결기까지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1-1). 그리고 “감정인식”의도는 초기부터 중기, 종결기로 진행되어 갈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한편 “통찰”의도는 초기에서 중기로 들어서며 급격히 증가하고 종결기로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나 유의있는 차를 보일 정도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각되었다(그림 1-3). 이와는 달리 “변화강화”의도는 초기나 중기에는 적게 지각되다가 종결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그림 1-4).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분류한 19개 의도 유목 중 그 이외의 의도는 내담자에게 지각되는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5).

〈2〉 상담자에게서 보고된 회기 진행별 상담자 반응의도 변화.

초기에서 중기, 종결기로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상담자가 스스로 의도한 것으로 보고한 반응의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시 초기, 중기, 종결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상담자가 평정한 반응의도 유목 각각의 평균지각율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그 평균지각율이 회기간에 유의있는 차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한 것이 표 3-1에 제시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상담자는 초기에 “명료화”와 “정보수집”, “감정인식”, “지지”의도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상담자가 초기에는 내담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능한 한 풍부하게 얻기 위하여 “정보수집”과 “명료화”의도를 가지고 반응을 많이 하여 초기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려함을 반영한다. 또한 상담자는 초기에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게 하려는 의도가 많은데 이는 상담의 필요성을 내담자가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를 내담자가 평정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담자는 초기에 “감정인식”의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데 비하여 내담자는 초기에 이 의도를 많이 지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수집”, “지지” 및 “명료화”의도는 양자에게서 다같이 많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평정의 차는 “정보수집”이나 “명료화”, “지지”의도는 이 의도를 전달하는 양식이 보다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장면에서 만날 수 있는 익숙한 반응들인데 비하여 “감정인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아울러 상담자는 초기에 내담자가

감정을 인식하도록 하여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가 많은 데 비하여 내담자는 이를 감지하지 못함을 반영한다.

그리고 상담이 거듭되어 중기로 들어서면 상담자는 “통찰”, “명료화”, “지지”와 “변화유도”의도를 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중기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내재한 의미를 통찰하고 기존의 행동 양식에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이끌어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따뜻한 상담분위기와 상담관계가 지속되도록 지지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중기에 나타난 상담자의 반응의도 평정 결과를 내담자의 것과 비교해보면 “지지”와 “통찰”의도는 양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중기에 상담자에게서는 “명료화”와 “변화유도”의도가 주로 지각된 반면 내담자에게서는 “정보수집”과 “감정인식”, “의문유도”의도가 주로 시작되었다. 상담자의 반응의도에 대한 양자의 평정은 중기에 들어서면 특히 서로 차이를 많이 보이는데 이는 중기에 사용되는 의도는 일상장면에서 흔히 경험하는 대화의 의도와 큰 차이가 있는 익숙하지 않은 반응의도이므로 추론하기가 보다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담자들이 종결기에 주로 보고한 의도를 살펴보면 “지지”와 “명료화”, “감정인식”, “통찰”의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그 감정을 깊이있게 경험함으로써 감정을 정리하고 좀더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통찰하도록 하면서 상담을 종결해감을 반영한다. 특히 “명료화”의도는 전 회기에 걸쳐 계속 상담자에게 많이 지각되는데 이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거나 애매하여 혼돈이 일어날 때 이를 분명히 설명해 주도록 요구하거나 상담자가 설명을 덧붙여 내담자의 이야기가 항상 서로에게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결기 상담자들의 평정 결과를 내담자의 것과 비교해보면 “감정인식”과 “지지”의도는 양자에게 공통적으로 많이 평정되었고 내담자에게

는 “의문유도”의도가 많이 지각된 반면 상담자에게는 “명료화”와 “통찰”의도가 많이 보고되었다.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기존의 행동방식이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담이 종결되는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의 의미를 충분히 통찰하도록 반응하며 상담이 종결되는 것으로 지각함을 반영한다.

한편 초기, 중기, 종결기에 상담자가 주로 사용하는 반응의도가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자의 회기별 반응의도 평균지각율을

F-검정한 결과가 표 3-1에 F값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명료화[F(2, 24)=6.40, P<.01]”, “자제격려[F(2, 24)=4.26, P<.05]”, “변화유도[F(2, 24)=3.65, P<.05]”, “변화강화[F(2, 24)=4.04, P<.05]”의도의 평균지각율이 회기간에 유의있는 차를 나타내었다. 즉, 상담자는 “명료화”와 “자제격려”, “변화유도” 및 “변화강화”의도에 초기와 중기, 종결기에 사용하는 비율이 유의있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상담자의 회기별 반응의도 평균지각율(M), 표준편차(SD) 및 각 회기의 평균지각율 F-검정

의도유목	초기		중기		종결기		F
	M	SD	M	SD	M	SD	
상담범위 및 계획수립	.03	.04	.01	.02	.01	.01	2.01
정보수집	.17	.11	.09	.06	.08	.04	3.39
정보제공	.02	.04	.00	.01	.01	.02	1.20
지지	.11	.07	.10	.07	.14	.12	.53
주제의 방향제시	.06	.03	.05	.01	.06	.03	.60
명료화	.21	.05	.13	.08	.11	.05	6.40**
변화에의 희망격려	.02	.02	.03	.04	.04	.02	1.17
감정정화	.03	.03	.06	.04	.03	.03	1.84
불합리한 생각지적	.03	.04	.06	.05	.04	.04	.98
불합리한 행동지적	.01	.01	.02	.02	.02	.02	1.17
자제격려	.01	.01	.01	.02	.03	.02	4.26*
감정인식	.13	.13	.10	.08	.10	.07	.27
통찰	.07	.06	.15	.08	.10	.08	2.55
변화유도	.03	.03	.10	.08	.07	.05	3.65*
변화강화	.02	.03	.02	.04	.07	.06	4.04*
처방극복	.02	.03	.01	.02	.01	.02	.45
의문유도	.05	.05	.06	.05	.06	.04	.23

F-검증으로써 회기에 따라 변화하는 상담자 자신의 대체적인 반응의도 사용 양상은 살펴보았으나 상담자의 반응의도가 어느 시기에 특히 서로 차이 있게 사용되는지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담자가 보고한 결과를 초기와 중기, 종결기로 구분하여 t-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2에서 상담자의 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자는 초기와 중기 사이에 “명료화[t(26)=2.64, p<.05]”와 “통찰[t(26)=2.37, p<.05]”, “변화유도[t(26)=2.44, p<.05]”의도의 평균지각율에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명료화”의도는 초기에 많다가 중기에는 유의있게 적어지고 “통찰”과 “변화유도”의도는 초기보다는 중기에 유의있게

많이 사용한 것으로 평정되었다. 이 결과는 상담자들이 초기 상담에서 달성할 목표와 상담이 증기로 들어섰을때 달성할 상담 목표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상담에 접근함을 시사한다.

표 3-2. 상담자의 회기별 반응의도 평균지각율의 t-검증

의도유목	초기/ 중기	중기/ 종결기	초기/ 종결기
상담범위및 계획수립	1.36	.38	1.71
정보수집	1.78	.47	2.23*
정보제공	1.43	1.19	.66
지지	.37	.93	.65
주제의 방향제시	.91	1.18	.13
명료화	2.64*	.38	4.12***
변화에의 회망격려	.85	.52	2.00
감정정화	1.60	1.60	.04
불합리한 생각지적	1.32	.58	.88
불합리한 행동지적	1.30	.31	1.43
자제격려	.34	2.11*	2.66*
감정인식	.64	.23	.48
통찰	2.37*	1.39	.71
변화유도	2.44*	.83	2.52
변화강화	.22	2.14*	2.34*
저항극복	.58	.39	.84
의문유도	.51	.09	.69
관계검토	.94	.31	.52
상담자의 방어	1.00	.00	1.00

* p<.05
** p<.01
***p<.001

한편 증기와 종결기 사이에 상담자는 “자제격려 [t(26)=2.11, p<.05]”와 “변화강화[t(26)=2.34, p<.05]”의도의 평균지각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 두 의도는 종결기에 유의하게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는 상담이 종결기에 다달음에 따라 자기 통제를 강조하고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강화를 많이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기와 종결기 사이에서는 “정보수집[t(26)=2.23, p<.05]”과 “명료화[t(26)=4.12, p<.001]”, “자제격려[t(26)=2.66, p<.05]”, “변화유도[t(26)=2.52, p<.05]”, “변화강화[t(26)=2.34, p<.05]”의도에 상담자의 평균지각율이 유의적인 차를 보였다. 즉 “정보수집”과 “명료화”의도는 초기에는 많이 사용되나 종결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상담자에게 평정되며 “자제격려”와 “변화강화”는 초기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종결기에 유의하게 많이 사용된 것으로 평정되었다. 이는 정보를 얻고 분명한 이해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정보수집”과 “명료화”의도는 초기에 많이 사용되고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 충동을 통제하도록 격려하고 내담자에게 새로운 적응적 반응 양식을 찾아내며 이미 일어난 변화가 지속되도록 강화하려는 의도는 종결기에 주로 사용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로써 상담자가 평정한 자신의 반응의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정보수립”의도의 사용은 초기에서 종결기로 회기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그림 2-1). 그리고 “명료화”의도도 비슷한 양상이나 초기에서 증기로 들어서며 보다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또한 “통찰”과 “변화유도”의도 사용은 증기에 들어서며 급격히 증가해서 종결기까지 유지 혹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그림 2-3). 한편 “자제격려”와 “변화강화”의도는 초기와 증기 사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종결기에 급격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2-4). 그리고 19개 의도 유목 중 위 의도 유의 의도는 상담자가 사용하는 정도에 회기별로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2-5).

B.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의 효율성 간의 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또한 상담에 접근하는 상담자의 특정한 반응의도가 상담 회기의 즉각적 결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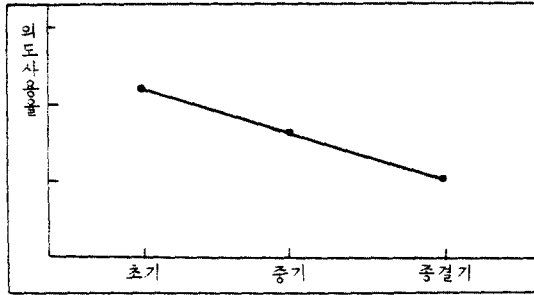


그림 2-1. 상담자의 "정보수집"의도 사용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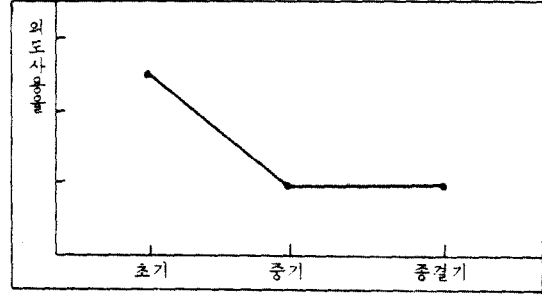


그림 2-2. 상담자의 "명료화"의도 사용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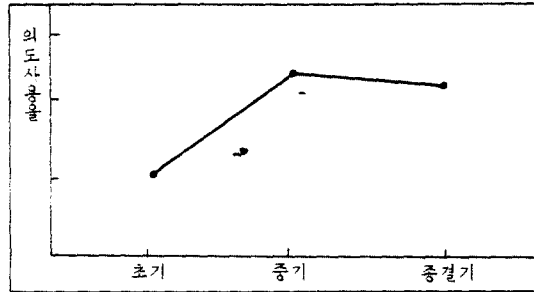


그림 2-3. 상담자의 "활발""변화유도"의도 사용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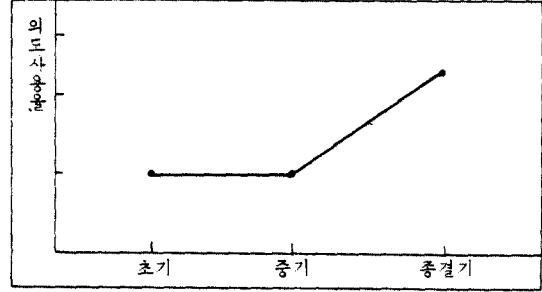


그림 2-4. 상담자의 "자제력려""변화강화"의도 사용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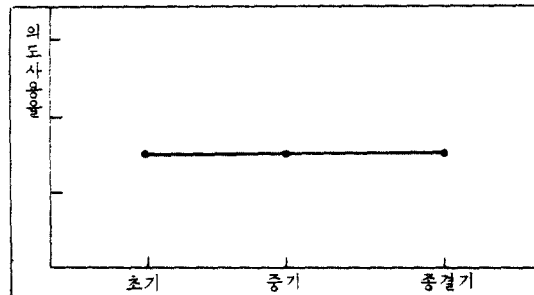


그림 2-5. 상담자의 기타 의도 사용변화

담자와 상담자가 평정한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의 평균지각율과 회기의 깊이, 순조로움, 긍정적 정서 평정결과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즉, 우선 각 반응의도의 평균지각율과 회기의 즉각적 결과를 평정하는 세 요인의 점수와의 상관도를 구함으로써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정 의도가 주어지는 시기에 따라 효율성이 달리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자 초기, 중기, 종결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평정된 회기별 반응의도 평균지각율과 회기의 효과 평정간 상관도를 구하였다. 이

와 아울러 회기의 각 평가 요인, 즉 회기의 깊이, 순조로움 및 상담후의 긍정적 정서가 높게 평정된 회기와 낮게 평정된 회기에서 차이있게 지각된 반응의도를 밝혀 회기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상담자의 반응의도를 규명하였다.

1.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의 효율성간의 전반적 상관분석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의 즉각적 결과간의 상관관을 통하여 상담의 효율성을 규명하고자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나타난 상관도를 각각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내담자 평정결과를 살펴보면 내담자에게 "지지"의도는 많이 지각될수록, 그리고 "자제력려"와 "저항극복"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그 상담 회기가 깊이있고 가치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회기의 순조로움 평정 결과를 보면 내담자에게는 "지지"와 "변화강화"의도는 많이 지각될수록, 그리고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생각 지적", "자제력려"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상담 회기가 순조롭고 편안한 회기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

었다. 내담자의 상담후 정서와 의도 지각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담자에게 상담 중 "지지"의도는 많이 지각될수록 "감정정화", "불합리한 생각지적", "자제격려"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상담 후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내담자들은 상담자에게 "지지"의도를 가진 반응이 많이 지각될수록 깊이 있는 상담으로 회기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내담자에게 분별력을 갖고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격려하는 반응이나 상담 진전이나 내담자의 변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다루는 반응은 내담자에게 깊이가 없는 상담으로 회기의 효율성이 낮게 평가됨을 시사한다.

또한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공감적인 지지를 많이 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려 한다는 것을 많이 지각할 때 순조로운 상담으로 회기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상담자가 부정적 감정이나 문제를 이야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많을수록, 또한 내담자의 불합리한 생각을 지적하려 하거나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격려하려는 반응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그 상담은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회기의 효율성을 낮게 평가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내담자는 상담 시간동안 상담자에게서 공감적 지지를 많이 받은 후에 긍정적 정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도록 유도하는 반응이나 불합리한 생각을 지적하는 반응,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분별력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한 상담자의 반응은 내담자에게 많이 지각될수록 상담 후 정서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내담자에게 "지지"의도는 많이 지각될수록 상담 회기가 깊이 있으면서도 순조로운 회기로 받아들여지고 상담 후 기분도 좋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담자의 "지지"반응이 내담자에게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제격려"의도는 내담자에게 많이 지각될수록 오히려 깊이도 없고 순조롭지도

표 4. 반응의도 유목의 평균지각율과 상담 회기의 효율성 평정간 상관도(r)

의도유목	내담자			상담자		
	깊이	순조로움	긍정적 정서	깊이	순조로움	긍정적 정서
상담범위 및 계획수립	.05	.05	-.06	-.08	.21	.05
정보수집	.03	-.07	.02	-.04	.31*	.07
정보제공	-.13	-.02	-.07	-.18	.07	-.14
지지	.33*	.31*	.37**	-.33*	.58***	.42**
주제의 방향제시	-.01	-.07	.06	.02	.30*	.10
명료화	-.02	.04	.00	.03	.25*	.21
변화에의 희망격려	.23	-.05	-.04	-.05	-.06	.07
감정정화	-.12	-.27*	-.25*	-.38**	-.46***	-.39**
불합리한 생각지적	-.21	-.33*	-.28*	-.04	-.29*	-.12
불합리한 행동지적	.13	-.03	.05	-.16	-.27*	-.29*
자제격려	-.28*	-.29*	-.43***	-.08	-.16	-.16
감정의인식	.01	-.02	-.01	-.53***	-.55***	-.52***
통찰	-.20	-.01	-.05	.41**	.21	.30*
변화유도	-.05	-.07	-.04	.22	-.16	.02
변화강화	.24	.28*	.15	-.10	-.13	-.07
저항극복	-.32*	-.19	-.20	.19	.02	.26*
의문유도	-.12	.11	.09	-.29*	-.55***	-.35**
관계검토	.20	.18	.13	.22	.14	.04
상담자의 방어	-.05	-.12	-.11	-.30*	-.23	-.20

* P < .05
 ** P < .01
 *** P < .0001

못한 회기로 평가되고 상담 후 기본도 부정적 상태였다. 이는 “자제격려”의도가 상담 장면 이외의 대인관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상투적 반응으로 상담에서 기대하는 바에 못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적 문화에서는 이 의도가 많이 지각될 때 상담이 제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Fuller와 Hill(1985)의 연구에서는 이 “자제격려(self-control)”의도가 많이 지각될수록 상담 회기가 깊어있다고 평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의 연구와는 정반대적 결과이다. 그러나 오경희(198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게 “자제격려”의도에 해당하는 “자기-통제하기”의도가 적게 지각될수록 내담자에게 순조로운 회기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차에 따라 상담자 반응의도와 회기의 효율성간의 관계는 차이가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반응의도 유목의 정의가 외국의 연구에서 정의한 바와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도 지각 양식에 있어서의 동서양간 문화적 차에 대한 연구가 좀더 이루어진 후에야 정확한 해석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담자의 평정 결과에서 나타난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효율성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내담자에게는 상담 과정에서 “지지”와 “자제격려”의도가 일만큼 지각 되는가 상담 회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에 중요하게 관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지지”의도는 충분히 전달하고 “자제격려”의도는 조심스럽게 전달할 때 내담자에게 상담 시간이 효율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표 4에서 상담자의 평정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자는 “지지”, “감정정화”, “감정인식”, “통찰”, “의문유도”, “상담자의 방어”의도의 사용이 회기의 깊이 평정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상담자에게 “통찰”의도는 많이 사용될수록, 그리고 “지지”, “감정정화”, “감정인식”, “의문유도”와 “상담자의 방어”의도는 적게 사용될수록 회기가 깊어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상담자가 평가한 회기의 순조로움과 반응의도 사용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보수집”과 “지지”, “주제의 방향제시”, “명료화”의도는 많이 사용될수록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생각지적”, “불합리한 행동지적”, “감정인식”과 “의문유도”의도는 적게 사용될수록 그 상담 회기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상담자의 상담 후 정서와 반응의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담자는 “통찰”, “저항극복”의도는 많이 사용할수록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행동지적”, “감정인식”, “의문유도”의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상담 후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 저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상담에 접근할 때 깊이있는 상담 회기로 그 효율성을 높이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지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게 하려는 반응, 또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려는 반응, 내담자의 기존 신념, 감정, 행동에 의문을 갖게 하려는 반응, 상담자 자신을 방어하려는 반응을 많이 한다고 지각된 상담은 깊이가 없는 회기로 그 효율성을 낮게 평가함을 시사한다.

한편 상담자는 상담 중 내담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려는 반응과 지지, 또는 상담자가 이야기할 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반응,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려는 반응을 많이 사용했을 때 그 상담 회기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의 불합리한 생각이나 행동을 지적하는 반응이 많거나 내담자가 자기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기 위한 반응, 기존의 불합리한 태도나 행동에 의문을 갖도록 유도하려는 반응을 많이 사용한 회기는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그 효율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자의 상담 후 정서는 내담자를 지지하는 반응,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의 의미를 통찰하게 하려는 반응, 내담자의 변화나 상담 진전에 방해가 되는 것을 극복하게 하려는 반응을 많이 사용한 회기 후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여 정화하게 하려는 반응이 많고 불합리한 행동을 지적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려는 반응이 많을 때, 그리고 기존의 불합리한 태도나 행동에 의문을 갖도록 유도하려는 반응이 많았던 상담 회기 후 상담자의 정서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상담자의 반응의도 지각과 상담 회기의 효율성간의 관계에서 특이한 점은 상담자는 상담 중 “지지”의도를 많이 사용했을 때 그 회기가 순조롭기는 하지만 깊이는 없는 회기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지”의도가 내담자에게 많이 지각될 때 그 회기가 순조로운 뿐 아니라 깊이도 있다고 평가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상담자에게 회기의 효율성 평가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 반응의도는 “감정정화”와 “감정인식”, “의문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의도를 상담자가 많이 사용했을 때 그 회기는 상담의 깊이도 없고 순조롭지도 못한 것으로 상담자에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상담 회기에서 이들의 의도는 내담자에게서 부정적 감정이 표출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할 때, 그리고 기존의 신념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 의도가 많이 사용되었던 회기에서 상담자는 회기의 효율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들 반응의도가 상담 회기의 효율성을 저해한 요인으로 상담자에게 판단됨을 시사한다.

2. 상담자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의 효율성간의 회기별 상관분석

상담자의 동일한 반응의도라 하더라도 상담 과정 중 어느 시기에 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상담 회기의 효율성은 달리 평가될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응의도의 평균지각율을 초기, 중기, 종결기로 나누어 회기별로 상담회기의 효율성 평가와 관련지어 보았다.

<1> 내담자에게 지각된 회기별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의 효율성간의 관계.

내담자에게 지각된 상담자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

의 효율성간의 상관성이 회기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기, 중기, 종결기로 나누어 상관도를 살펴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내담자의 회기 깊이 평정 결과를 보면, 초기에 내담자에게 “저항극복”의도는 많이 지각될수록 내담자는 그 상담 회기가 깊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는 상담을 지속시키고 상담의 진전을 꾀하기 위해 이 의도로 반응을 하지만 저항의 문제를 다루려는 상담자의 반응이 초기에 내담자에게 많이 지각되면 이는 내담자가 상담 회기를 깊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게 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중기에 상담 회기의 깊이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 의도는 초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기에 “지지”의도는 내담자에게 많이 지각될수록, “자제격려”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상담 회기가 깊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가 중기에 상담이 의미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상담자의 지지 반응임을 시사한다. 이는 특히 상담에 중요한 요소는 공감적 이해와 따뜻한 상담 분위기라고 강조한 Rogers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상담자가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격려하는 반응이 중기에 많이 지각될 때 내담자는 상담에서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는 일상적인 제도적 반응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깊이가 없는 상담 회기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결기에 내담자의 상담 회기의 깊이 평가는 초기나 중기와는 또다른 양상을 보인다. 종결기에는 내담자에게 “감정정화”와 “자제격려”의도가 적게 지각될수록 깊이는 있는 상담 회기로 평가되었다. 이로써 상담이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종결기에 부정적 감정을 표출시켜 정화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자의 반응이나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격려하고 상담 진전이나 내담자 변화에 저해되는 요인을 다루는 반응이 많음은 내담자에게 종결상담이 깊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담 종결시 이들의 의도가 내담자에게 상담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의도이므로 조심스럽게 반응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표 5. 내담자의 회기별 반응의도 평균지각율과 회기의 효율성 평정간 상관도(적률상관계수 r)

의도유목	깊 이			순조로움			긍정적정서		
	초기	중기	종결기	초기	중기	종결기	초기	중기	종결기
상담범위 및 계획수립	-.57	.09	-.20	.02	.00	-.33	-.25	.01	-.37
정보수집	.13	-.16	.11	.22	.01	.33	.56	.03	.20
정보제공	-.53	-.28	.20	-.28	.07	.11	-.43	-.10	.24
지지	.30	.68*	.36	.23	.80**	.37	.40	.79**	.33
주제의 방향제시	-.21	-.34	.02	.24	-.39	-.16	.22	-.35	-.13
명료화	-.02	.57	.20	.45	.56	.24	.15	.62*	.24
변화에의 희망격려	.41	-.26	.03	.20	-.60*	.08	-.15	-.44	.11
감정정화	.14	-.36	-.84**	-.31	-.06	-.73*	-.03	-.13	-.85**
불합리한 생각지적	-.07	-.26	-.27	-.20	-.69*	-.24	-.56	-.55	-.26
불합리한 행동지적	.51	.10	-.07	.30	-.21	-.09	-.06	-.09	-.09
자제격려	-.10	-.72*	-.59*	-.28	-.75**	-.47	-.35	-.76**	-.53
감정인식	-.14	-.08	-.06	-.29	-.04	-.14	-.61*	-.12	-.02
통찰	.50	-.22	-.25	.59*	-.14	-.29	.44	-.17	-.29
변화유도	.00	-.35	-.13	-.34	-.12	-.28	-.40	-.18	-.26
변화강화	-.27	.39	.05	-.59*	.38	-.08	-.54	.38	-.06
저항극복	-.85**	--	-.76**	-.51	--	-.65*	-.73*	--	-.65*
의문유도	-.45	.19	.14	-.53	.54	.25	-.31	.38	.20
관계검토	.36	.18	-.01	.13	.17	.03	-.05	.15	-.01
상담자의 방어	--	.39	-.40	--	.38	-.60*	--	.38	-.61*

* P < .05

** P < .01

*** P < .001

내담자의 회기별 반응의도의 평균지각율과 상담 회기의 순조로움 평가간의 상관도를 보면 초기에 "통찰"의도는 내담자에게 많이 지각될수록 "변화강화"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상담 회기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초기에 내담자에게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의 의미를 통찰하게 하려는 반응이 많이 지각될수록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내담자는 상담 회기가 순조롭다고 느낀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초기에 내담자가 이미 시도해 봤던 여러가지 행동 방식을 강화하는 반응이 많을 때 내담자는 그 상담이 순조롭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중 통찰을 갖게 하려는 상담자의 반응이 초기 상담의 회기가 순조롭다고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는 결과는 상담에 대한 통념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통찰"의도가 초기에는 내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통찰"의

도 유목에 대한 오류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를 좀더 확실하게 변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기에 들어서면 초기 상담에서와는 달리 내담자에게 "지지"의도는 많이 지각될수록 "변화에의 희망격려"와 "불합리한 생각지적", "자제격려"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상담 회기를 순조로운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중기에 상담자의 지지적 반응이 많이 지각됨은 내담자에게 상담 회기가 순조롭게 느껴지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기에는 내담자에게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내담자의 불합리한 생각을 지적하는 반응,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을 통제하도록 격려하는 반응이 많이 지각됨은 내담자에게 그 상담 회기가 순조롭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게 하는 요인

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기에는 상담자의 지지적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고 변화 가능성을 격려하는 반응이나 불합리한 생각을 지적하고 자세를 강조하는 반응을 조심스럽게 할 때 상담 회기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종결기 내담자의 순조로움 평가는 초기나 중기와는 또다른 양상을 보인다. 종결기 내담자는 “감정정화”와 “저항극복”, “상담자의 방어”의도가 적게 지각될수록 상담이 순조로운 회기였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써 종결기에는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고 내담자의 변화나 상담진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루는 반응, 상담자 자신을 방어하려는 반응들이 많을 때 상담 회기가 순조로움이 저해되므로 이 의도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표 5에서 내담자의 정서와 반응의도 지각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감정인식”과 “저항극복”의도가 적게 지각될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에는 이와는 달리 “지지”와 “명료화” 의도는 많이 지각될수록, “자제격려”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내담자는 상담후에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결기에는 내담자에게 “감정정화”와 “저항극복”, “상담자의 방어”의도가 적게 지각될수록 상담후 정서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상담후 정서는 이후 상담이 지속될 수 있는가의 지표가 될뿐 아니라 상담 회기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초기에는 상담자에게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려는 의도나 내담자의 변화나 상담 진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다루려는 의도가 많이 지각되면 상담 후 내담자의 정서는 부정적인 상태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중기에는 지지적 반응과 내담자가 제시하는 이야기 태움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많이 지각될수록 정서는 긍정적이었다. 반면 내담자에게 충동이나 행동을 통제하도록 격려하는 반응은 많이 지각될수록 상담후 정서가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종결기에 들어서서는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고 상담 진전이나 내담자의 변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다

루거나 상담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반응이 많이 지각될수록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저항극복”의도는 내담자에게 많이 지각되면 전 회기에 걸쳐 회기의 깊이와 순조로움, 상담 후 정서 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상담자의 “지지”의도와 “감정인식”의도는 상담 중기의 효율성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중기에 “지지”의도는 많이 지각될수록, “감정인식”의도는 내담자에게 적게 지각될수록 회기의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종결기에는 특히 “감정정화”의도가 회기의 효율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 의도는 종결기에 내담자에게 내담자에게 적게 지각될수록 회기가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상담자에게서 보고된 회기별 상담자의 반응 의도와 상담 회기의 효율성간의 관계

상담자가 상담 중 사용한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의 효율성간의 상관이 회기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기, 중기, 종결기로 나누어 상관도를 살펴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회기의 깊이 평정간의 관계를 보면 초기에 “지지”와 “명료화”, “자제격려”의도는 상담자가 많이 사용할수록 “감정정화”와 “감정인식”, “의문유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깊이 있는 회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따뜻한 상담 분위기로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거나 충동이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격려하는 반응을 많이 한 상담 회기가 깊이 있다고 평정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초기에 상담자가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게 하려는 반응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려는 반응, 기존의 행동 방식이나 신념에 의문을 갖게 하기 위한 반응을 많이 한 상담 회기는 깊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함을 시사한다.

한편 중기에 상담자가 깊이있는 회기로 평가하는 것은 초기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중기에 상담자는 “통찰”의도는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감

표 6. 상담자의 반응의도 지각율과 회기의 효율성 평정간 회기별 상관도(적률상관계수 r)

의도유목	깊이			순조로움			긍정적정서		
	초기	중기	종결기	초기	중기	종결기	초기	중기	종결기
상담범위 및 계획수립	-.40	.41	-.28	-.20	.65*	-.16	-.44	.32	.06
정보수집	.37	-.07	.19	.74*	.11	.69*	.30	-.11	.07
정보제공	.23	.06	-.13	.43	.33	-.42	-.02	.15	-.29
지지	.61*	.48	.48	.88***	.78**	.48	.60*	.56	.39
주제의 방향제시	.24	.07	-.33	.01	.21	.29	.08	.09	-.07
명료화	.73*	-.20	-.15	.61*	.09	.53	.65*	.10	.18
변화에의 희망격려	-.08	.21	.14	-.16	.12	-.34	-.01	.32	.00
감정정화	-.78**	-.68*	-.48	-.75**	-.78**	-.23	-.69*	-.60*	-.20
불합리한 생각지적	.33	-.40	.45	-.03	-.64*	.04	.22	-.65*	.54
불합리한 행동지적	-.67*	-.65*	-.50	-.75**	-.52	-.61*	-.41	-.70*	-.66*
자제격려	.68**	-.32	.21	.44	-.44	.31	.65*	-.44	.15
감정인식	-.63*	-.41	-.81**	-.64*	-.43	-.80**	-.60*	-.25	-.80**
통찰	.54	.61*	.03	.19	.69*	-.17	.57	.79**	-.15
변화유도	-.11	.20	.17	-.22	-.31	.17	.22	-.17	.29
변화강화	-.50	-.19	.04	-.53	-.51	.05	-.35	-.62*	.18
저항극복	.08	.27	.65*	-.22	.50	-.02	-.02	.50	.67*
의문유도	-.66*	-.15	-.19	-.88***	-.23	-.47	-.47	-.14	-.18
관계검토	-.54	.34	-.09	-.43	.54	-.30	-.64*	.30	-.55
상담자의 방어	-.48	--	--	-.56	--	--	-.48	--	--

* P < .05
 ** P < .01
 *** P < .001

정정화"와 "불합리한 행동지적"의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상담 회기가 깊이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상담자는 중기에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의 의미를 통찰하게 하려는 반응을 많이 했을 때 회기가 깊이있다고 평정하는데 이는 상담 중기로 들어섰을 때 상담자가 상담의 목표를 "통찰"에 두고 접근함을 시사한다. 반면 중기에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여 정화하도록 격려하는 반응이 많거나 내담자의 불합리한 행동을 지적하여 직면하게 하려는 반응이 많을 때 그 중기 상담은 깊이가 없다고 평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결기에 들어서면 상담자에게 "저항극복"의도는 많이 사용할수록 "감정인식"의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상담 회기가 깊이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내담자의 변화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극

복하도록 강조하면서 상담이 종결될 때 상담자는 그 상담이 깊이있는 것으로 받아들임을 시사한다. 반면 상담자는 종결기에 내담자에게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려는 반응을 많이 했을 때 종결 상담으로서의 상담이 깊이가 없는 회기로 평가함을 반영한다.

한편 표 6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회기의 순조로움 평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에 상담자에게 "정보수집"과 "지지", "명료화"의도는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행동지적", "의문유도"의도는 적게 사용될수록 순조로운 회기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에게 지지적 반응을 많이 하거나 내담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반응을 많이 했을 때 초기 상담으로서의 그 상

담 회기는 순조로왔던 것으로 평정함을 반영한다. 반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여 정확하게 하려는 반응이나 내담자의 불합리한 행동을 지적하고 기존의 행동 방식에 의문을 갖게 하려는 반응이 초기에 많으면 상담자는 초기 상담으로서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을 시사한다.

한편 중기에는 회기의 순조로움 평가가 초기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중기에 상담자들은 “상담범위 및 계획수립”, “지지”, “통찰”의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회기가 순조롭다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써 상담자에게는 중기에 상담 범위와 계획을 수립하는 반응이 많다고 지적되고 지지적 반응이나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통찰하게 하려는 반응이 많이 지적된 회기가 순조로운 것으로 평가함을 반영한다. 반면 중기에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여 정확하도록 유도하는 반응이나 내담자의 불합리한 생각을 지적하는 반응을 많이 한 회기는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그 회기의 효율성이 낮게 평가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종결기에 상담자는 “정보수집”이 많고 “불합리한 행동지적”과 “감정인식”의도가 적게 사용되었을 때 순조롭다고 평가하였다. 종결기에 사용되는 “정보수집”의도는 주로 미래 계획이나 상담 종결 후의 생활 계획에 관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 반응이 많을 경우 종결기 상담이 순조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동을 지적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반응은 상담을 종결해 가는 단계에서 많이 사용될 때 상담자는 종결 상담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반응의도와 상담자의 상담 후 정서간의 관계를 표 6에서 살펴보면 초기 상담자는 “지지”와 “명료화”, “자제격려”의도는 많을수록 “감정정화”와 “감정인식”, “관계검토”의도는 적게 사용될수록 긍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에 상담자는 “통찰”의도가 많을수록, 반면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생각지적”, “불합리한 행동지적”, “변화강화”의도는 적게 사용될수록 상담 후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결기에는 “저항극복”의도는 많을수록 “불합리한 행동지적”과 “감정인식”은 적게 사용될수록 상담 후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서 상담자는 초기 상담 후 내담자를 지지하거나 내담자가 제기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격려하는 반응을 많이 한 상담 회기 후 긍정적 정서를 경험함을 시사한다. 반면 초기에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고 정확하게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려는 반응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려는 반응을 많이 하면 상담 후 부정적 정서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행동이나 감정의 의미를 통찰하게 하려는 반응을 많이 한 중기 상담 후 긍정적 정서를 경험함을 시사한다.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을 정확하게 하고 불합리한 생각이나 행동을 지적하는 반응을 많이 하거나 내담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강화하는 반응을 많이 한 상담 후에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종결기에는 내담자의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다루려는 반응을 많이 하며 상담이 종결될 때 상담자의 정서는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반면 내담자의 불합리한 행동을 지적하는 반응이 많거나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려는 반응을 많이 한 종결 상담 후 상담자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회기의 효율성간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지지”, “명료화”와 “감정인식”의도는 초기 상담에서 회기의 효율성 평가 요인에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상담자는 초기에 “지지”와 “명료화”의도는 많이 사용할수록 “감정정화”와 “감정인식”의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상담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중기에는 “감정정화”와 “통찰”의도의 사용이 상담 회기의 효율성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상담자는 중기에 “감정정화”의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통찰”의도는 많이 사용할수록 회기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종결기의 상담에서는 “감정인식”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종결 상담에서는 이 의도가 많이 사용할수록 효율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3. 회기 평가 요인의 각 평정치가 높은 회기와 낮은 회기의 반응의도 차이분석

여기서는 47회기중 깊이, 순조로움, 상담 후 긍정적 정서요인에 대하여 각 요인별로 평정치가 특히 높은 회기와 낮은 회기를 선택하여 그 회기에 자주 사용된 것으로 평정된 상담자의 반응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내담자의 깊이 평가에 있어서는 “지지” $[t(18)=2.59, P<.05]$ 와 “변화에의 희망격려” $[t(18)=2.40, P<.05]$ 의도의 평균지각율이 차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담자는 “지지”와 “변화에의 희망격려”의도가 많이 지각될 때 깊이있는 상담 회기로 평가했다.

한편 상담자는 “자제격려” $[t(19)=2.59, P<.05]$ 만이 깊이있는 상담회기와 깊이가 없는 상담 회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깊이 있는 상담 회기일 때 이 의도가 의의있게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회기의 순조로움 평가에 있어 내담자는 “지지” $[t(19)=4.18, P<.001]$ 와 “명료화” $[t(19)=2.23, P<.05]$, “변화강화” $[t(19)=2.10, P<.05]$ 의도의 평균지각율이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순조로운 회기와 그렇지 않은 상담 회기에 “지지”와 “명료화”, “변화강화”의도의 사용 빈도가 의의있게 차이가 있었다.

한편 상담자에게 있어서 “지지” $[t(22)=23.63, P<.001]$ 의도는 내담자와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였고 그 외에 “변화에의 희망격려” $[t(22)=2.27, P<.05]$, “불합리한 생각지적” $[t(22)=3.01, P<.01]$, “자제격려” $[t(22)=4.91, P<.001]$, “감정인식” $[t(22)=2.15, P<.05]$ 의도가 순조로운 회기와 그렇지 않은 회기에서 그 사용 빈도에 의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후의 정서에 있어서 내담자는 “지지” $[t(20)=3.53, P<.01]$ 와 “변화에의 희망격려” $[t(20)=2.21, P<.05]$ 의도에 차를 보인 반면 상담자

는 “지지” $[t(19)=3.91, P<.01]$ 와 “자제격려” $[t(19)=4.50, P<.001]$ 의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내담자에게 “지지”의도를 지각하는 것이 상담 회기의 깊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담자에게는 이 의도 사용이 그 회기의 깊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변화에의 희망격려”의도 지각이 내담자에게는 그 상담 회기의 깊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담자에게는 순조로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제격려”의도의 빈번한 사용은 상담자에게는 회기의 깊이, 순조로움, 상담 후 정서에 다같이 영향력이 있었으나 내담자에게는 어느 요소에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내담자와 상담자의 회기 평가에 작용하는 반응의도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담자의 반응이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서로 다른 주관적 경험으로 지각되며 함께 경험한 회기의 효율성도 차이있게 평가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약 및 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반응의도를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특정 개입을 선택하는데 중개적 역할을 하는 인지적 요소라고 보고 내담자와 상담자에게서 각각 보고된 상담자의 반응의도를 중심으로 상담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의 효율성간에 체계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실제 상담 후 상담회기평가 질문지로서 그 상담 회기의 즉각적 결과를 우선 측정하였다. 그리고 상담 회기가 끝난 직후 그 회기의 녹음 내용을 되돌려 들으며 상담자의 반응의도를 평정하였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두가지 방향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상담자 반응의도 유목 척도 내 각 유목의 평균지각율을 구하여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상담의 반응의도가 각각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자에게 지각된 의도가 상담 회기의 효율성과 어떠한 상관을 나타내는지를 의도유목의 평균 지각율과 상담회기평가 질문지 평정 결과와의 상관도로써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지각된 의도를 지각율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개 의도 항목 중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가장 많이 지각되는 상담자의 반응의도는 “정보수집”과 “지지”, “감정인식”, “명료화”, “통찰”, “의문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자가 주로 사용했다고 보고한 반응의도는 “명료화”와 “정보수집”, “통찰”, “지지”, “감정인식”이었다. 이 결과는 상담 과정에서 “정보수집”과 “지지”, “명료화”와 “감정인식”, “통찰”의도가 주로 사용되는 의도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상담자의 반응의도로부터 그 의도를 추론함에 있어 내담자와 상담자는 몇몇 의도에 의해서 그 평정 결과가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내담자는 상담자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정보제공”과 “변화에의 희망격려”, “자제격려”를 유의있게 많이 지각하고 “명료화”와 “통찰”, “저항극복”의도는 상담자에게 유의있게 지각되었다. 이 결과는 내담자에게 많이 지각되는 의도와 상담자가 많이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에 체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3. 내담자와 상담자간 일치율이 높은 의도와 낮은 의도를 살펴본 결과 “지지”와 “정보수집”, “명료화”의도는 지각의 일치율이 높았다. 반면 “상담자의 방어”와 “불합리한 행동지적”, “자제격려”, “저항극복”의도에 대하여서는 일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도에 따라 내담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회기의 진행에 따라 상담자의 반응의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유의있는 변화가 밝혀졌다.

1. 내담자에게 많이 지각된 상담자의 반응의도를 살펴보면 초기에 “지지”와 “정보수집”, “명료화”의도가, 중기에는 “정보수집”, “지지”와 아울러 “감정인식”, “통찰”, “의문유도”의도가 많이 지각되었다. 그리고 종결기에는 “감정인식”과 “지지”, “의문유도”의도가 주로 지각되었다. 이 결과는 내담자에게 있어 상담자의 “지지”의도는 상담 회기에 차이가 없이 많이 지각되고 초기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많다가 점차 감정을 인식하고 통찰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많이 지각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감정인식과 아울러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행동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담이 종결되는 것으로 내담자에게 지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제의 방향제시”와 “명료화”, “감정인식”, “변화강화”의도는 초기와 중기, 종결기에 지각된 상대적 빈도가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회기의 진행에 따라 상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도가 변화함을 내담자가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상담자가 주로 사용한 의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명료화”와 “정보수집”, “감정인식”, “지지”의도가, 중기에는 “통찰”과 “명료화”, “지지”와 “변화유도”의도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종결기에는 “지지”와 “명료화”, “감정인식”과 “통찰”의도가 많이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지지”와 “명료화”의도는 상담자가 회기 전전에 관계없이 항상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내담자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도를 주로 갖고 접근하며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도 상담자에게는 초기에 강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그러다가 중기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상담 관계가 굳건히 형성 되면 사건에 대한 통찰과 기존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상담에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종결기에 들어서면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통찰하게 하려는 반응을 주로 하면서 상담을 종결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담자에게는 “명료화”와 “자제격려”, “변화유도” 및 “변화강도”의도는 초기, 중기, 종결기에 사용했다고 보고하는 상대적 빈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로써 상담자도 회기의 진행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의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감을 알 수 있다.

세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의 효율성간에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의도에 따라 효율성 평가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내담자가 평정한 깊이 평정 결과를 보면 “지지”의도는 내담자에게 많이 지각될수록 “자제격려”와 “저항극복”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그 상담 회기가 깊이있다고 평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조로움 평가에 내담자에게 “지지”와 “변화강화”의도는 많이 지각될수록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생각지적”, “자제격려”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순조로움 회기로 평가하였다. 한편 상담 후의 정서에 있어 “지지”의도는 많고 “자제격려”와 “감정정화”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내담자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담자가 평정한 회기의 깊이가 평정 결과를 보면 상담자는 “통찰”의도는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지지”와 “감정정화”, “감정인식”, “의문유도”, “상담자의 방어”의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상담 회기가 깊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순조로움 평정에 있어 상담자는 “정보수집”과 “지지”, “주체의 방향제시”, “명료화”의도는 많이 사용할수록,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생각지적”, “불합리한 행동지적”, “감정인식”, “의문유도”의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순조로운 상담 회기로 평가하였다. 한편 상담 후의 정서에 있어서 “지지”와 “통찰”, “저항극복”의도는 많이 사용될수록,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행동지적”, “감정인식”과 “의문유도”의도는 적게 사용될수록 상담자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담자의 반응의도는 사용되는 시기에 따라 효율성과의 상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견되었다.

1. 내담자에게 지각된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회기의 깊이가 평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저항극복”의도가 적게 지각될수록, 중기에는 “지지”의도가 많고 “자제격려”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깊이 있는 회기로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종결기에 “감정정화”와 “자제격려”, “저항극복”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깊이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내담자에게 지각된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순조로움 평가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초기에 “통찰”의도는 많이 지각될수록, “변화강화”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순조롭게 진행된 상담 회기로 평정하였다. 중기에는 “지지”의도는 많고 “변화에의 희망격려”와 “불합리한 생각지적”, “자제격려”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순조로운 회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결기에는 “감정정화”와 “저항극복”, “상담자의 방어”의도가 적게 지각될수록 내담자는 순조로운 회기로 평가하였다.

3. 내담자에게 지각된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 후 정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에 “감정인식”과 “저항극복”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에 들어서서는 “지지”와 “명료화”의도는 많고 “자제격려”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종결기에는 “감정정화”와 “저항극복”, “상담자의 방어”의도가 적게 지각될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4. 상담자가 평정한 반응의도와 회기의 깊이가 평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에 상담자는 “지지”와 “명료화”, “자제격려”의도는 많이 사용할수록, “감정정화”와 “감정인식”, “의문유도”의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상담 회기를 깊이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기에는 “통찰”의도는 많을수록,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행동지적”의도는 적게 사용될수록 깊이있는 회기로 평가하였다. 한편 종결

기에는 “저항극복”의도는 많고 “감정인식”의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깊이있는 회기로 평가하였다.

5. 상담자에게 지각된 반응의도와 회기의 순조로움 평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상담자는 “정보수집”과 “지지”, “명료화”의도는 많이 사용하고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행동지적”, “의문유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순조롭게 진행된 회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기에는 상담자가 “상담범위 및 계획수립”과 “지지”, “통찰”의도는 많을수록,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생각지적”의도는 적을수록 순조로운 회기로 평가하였다. 한편 종결기에는 “정보수집”의도는 많고 “불합리한 행동지적”과 “감정인식”의도는 적게 사용될수록 순조로운 회기로 평가하였다.

6.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 후 정서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기에 “지지”와 “명료화”, “자제격려”의도는 많이 지각될수록, “감정정화”와 “감정인식”, “관계유지”의도는 적게 사용한 것으로 지각될수록 상담 후 긍정적 정서 상태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중기에 “통찰”의도는 많을수록, “감정정화”와 “불합리한 생각지적”, “불합리한 행동지적”, “변화강화”의도는 적게 지각될수록 상담자의 정서는 긍정적인 상태였다. 한편 종결기에 들어섰을때 “저항극복”의도는 많을수록 “불합리한 행동지적”과 “감정인식”의도는 적게 사용할수록 긍정적인 상태였다.

다섯째, 각 회기의 평정치가 높은 회기와 낮은 회기에서 사용된 의도의 평균지각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가장 깊이 있다고 평가된 회기와 가장 깊이가 없다고 평가된 회기를 비교한 결과 내담자에게는 “지지”와 “변화에의 희망격려”, 상담자에게는 “자제격려”의도를 지각하는 상대적 빈도에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2. 가장 순조롭다고 평가된 회기와 순조롭지 못한 회기를 비교한 결과, 내담자에게는 “지지”와 “명료화”, “변화강화”의도, 상담자에게는 “지지”와 “변화에의 희망격려”, “불합리한 생각지적”,

“자제격려”, “감정인식”의도를 지각하는 상대적 빈도에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3. 상담 후 가장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회기와 가장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회기를 비교한 결과 내담자에게는 “지지”와 “변화에의 희망격려”의도의 지각율이 유의있는 차를 나타내었다. 한편 상담자에게서는 “지지”와 “자제격려”의도에 있어 유의있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졌다.

논 의

이러한 결과를 밝히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실제 사례의 자료를 첫 회기부터 종결기까지 계속 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반응의도 평정 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훈련시킬 수 없었다. 또한 내용의 녹음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내담자들에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담자에게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피험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연스런 이 진행을 저해하였다. 한편 연구에 사용된 도구에 있어 상담자의 반응의도 유무 척도는 상담자가 사용하는 반응의도가 범이론적으로 세분하여 총괄되어 있는 반면 19개에 달하는 긴 항목 중 선택하는 일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한 것도 문제점이었다. 또한 상담회기평가 질문지에 있어서 연구자가 외국의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추측했던 상담 회기 평가의 네 요인-회기의 깊이, 순조로움, 상담 후의 긍정적 정서, 각성도-중 상담 후 각성도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상담 회기를 평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로 제시된 양극 행동사쌍의 평정결과가 내담자와 상담자의 개인차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순수하게 회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그 변량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상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 과정과 결

과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에 적절한 방법으로 추천되어 온 사례연구 방법(Bergin & Lambert, 1978; Gelso, 1979; Hill, in press; Resnikoff, 1978)을 채택하였다. 사례 연구는 변화의 사전-사후 측정을 위주로 하는 연구 방식에 비하여 몇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선 사례연구를 함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실제 일어난 상호작용을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실제 상담 과정에서 구한 자료를 긍정적 결과 및 부정적 결과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매 상담 회기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변화있게 이루는 독특한 관계의 변화 과정과 질적인 측면을 포착할 수 있다. 넷째, 사례연구를 함으로써 내담자 개개인이 가진 개별적 문제에 대하여 각각 결과 측정이 가능하다. 즉, 획일적으로 사전-사후 측정을 할 수 없는 다양한 내담자의 문제가 상담 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례 연구는 자칫 연구자의 주관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실제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상담의 효율성 문제를 다룬 초기 연구들은 상담자의 주관적 평정에만 의존하여 효율성을 보고하는 방법론적 문제점 때문에 과학적 증명력이 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사례를 객관적으로 평정하여 과학적으로 기술한 초기연구(Frank & Sweetland, 1962; Murray, 1954; Snyder, 1945; 1947; 1963)들이 많이 있어 과학적인 사례 연구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석할 목적으로 실제 상담 사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상담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담자의 언어 반응 보다는 이를 통하여 추론되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반응의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 반응의도는 상담자가 그 회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전체적 의도와 특정 반응을 통해 즉각적으로 이루

고자 하는 직접적 의도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언어 반응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직접적 의도로 반응의도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방법론상으로 볼 때 객관적 평정자들이 상담 후 즉각적으로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상담 참여자들이 상담 당시에 지각한 내용을 자료로 삼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실제 상담자가 사용하는 반응의도의 분포와 회기 진행에 따른 의도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특정 반응의도의 사용이 상담 회기의 효율성과 갖는 관계를 밝혔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반응의도와 상담 회기의 효율성간에 나타난 상관 관계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 결과로서 제시된 결과가 부분적으로 상담에 대한 일반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론적 접근방식의 차에 따라 상담자의 반응의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Hill과 O'Grady(1985)는 상담자의 이론적 접근 방식의 차이에 따라 19개 의도 유목중 7개 유목은 상대적 사용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그리고 Fuller와 Hill(1985)은 어떠한 내담자와 어떠한 상담자가 만나는가에 따라 상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는 상담자의 반응의도가 내담자나 상담자의 개인차에 의하여 사용빈도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 변량의 측정과 아울러 양자의 상호 작용에 의한 변량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 상담 회기의 즉각적 결과의 평정치와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 정도를 관련지어 연구함으로써 각 상담 회기의 효율성이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오경희(1986),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 전달이 내담자의 의도 지각 및 상담의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장호(1982),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 박영사.
- Bergin, A.E., & Lambert, M.J.(1978), "The evaluation of therapeutic outcome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2nd ed.) eds. S.L. Garfield & A.E. Bergin, New York : Wiley, 139-190.
- Frank, G.H., & Sweetland, A.(1962), A study of the process of psychotherapy : The verbal inter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135-138.
- Fuller, F., & Hill, C.E.(1985), Counselor and helpee perceptions of counselor intentions in relations to outcome in a single counseling s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29-338.
- Gelso, C.J.(1979), Research in counseling : Methodological and professional issues, *Counseling Psychologist*, 8, 7-36.
- Hill, C.E.(in press), Counseling process research :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 Hill, C.E., & O'Grady, K.E.(1985), List of therapist intentions illustrated in a case study and with therapists of varying theoretical orien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22.
- Kagan, N.(1975), Interpersonal process recall : A method of influencing human interaction, *Unpublished Manuscript*.
- Kagan, N.(1984), Interpersonal process recall : Basic methods and recent research, *Teaching Psychological Skills*, ed. D. Larsen, Brooks Cole : Montesory, CA.
- Mann, J.(1973), *Time-limited Psychotherap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Mintz, J., & Luborsky, L.(1971), Segments vs. whole sessions : Which is the better unit for psychotherapy researc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180-191.
- Murray, E.J.(1954), A case study in a behavioral analysis of psychotherap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305-310.
- Orlinsky, D.E., & Howard, K.I.(1978), The relation of process outcome in psychotherapy,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 An Empirical Analysis*(2nd ed.), eds. S.L. Garfield & A.E. Bergin, New York : Wiley, 283-330.
- Resnikoff, A.(1978), Scientific affairs committee report, 1975-1977 : A discussion of method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7, 67-71.
- Snyder, W.U.(1945), An Investigation of the nature of nondirective psychotherapy,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33, 193-223.
- Snyder, W.U.(1947), A comparison of one unsuccessful with four successful nondirectively counseled cas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1, 38-42.
- Snyder, W.U.(1963), *Dependency in Psychotherapy : A Case Book*, New York : Macmillan.
- Stiles, W.B., & Snow, J.S.(1984 a), Dimensions of psychotherapy session impact across sessions and across cli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 59-63.

- Stiles, W.B., & Snow, J.S. (1984 b),
 Counseling session impact as viewed by
 novice counselors and their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12.
- Strupp, H.H., & Hadley, S.W. (1979). Specific
 versus nonspecific factors in psychothe-
 rapy: A controlled study of outcom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6, 1125-
 1136.
- Tracey, T.J., & Ray, P.B. (1984), Stages of
 successful time-limited counseling: An
 interactional exa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3-27.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Counselor and Client
 Perception of Counselor Intention in Relation to
 Session Outcome in a Case Study**

CHOI, Yoon-Mi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counseling process in relation to counseling session outcome. The first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several possible session process variables that could be correlated with session outcome: (a) counselor intentions, (b) client perceptions of counselor intentions, and (c)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what the counselor intended and what the client perceived as the counselor intention. The second purpose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participants' perception of counselor intentions and session outcome. The purposes were achieved in two ways: one, without discriminating session, and two, across session divided into initial, progressed and near termination.

For the purposes the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for Koreans and the List of Counselor Intentions for Koreans were developed and modified by the author and tested for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ctual counseling cas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wenty six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as clients with an equal ratio between male and female. Five female counselors working at university in student guidance center as counsel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ly perceived counselor intentions for both clients and counselors were—"get information", "support", "clarify", "feeling" and "insight." Second, "get information", "hope" and "self-control" were perceived more by the clients, while "clarify", "insight" and "resistance" were more frequently mentioned by the counselors. Third, intention varied systematically across counseling sessions: (a) during the initial session, the most frequently perceived intentions by the clients were "get information" and "clarify"; (b) in progressed sessions, "feeling", "insight" and "challenge"; (c) in near termination, "feeling" and "challenge"; and (d) "support" was perceived frequently by the clients all across the sessions. Fourth, most frequently reported intentions by the counselors were: (a) in initial sessions, "get information" and "feeling"; (b) in progressed sessions, "insight" and "change"; (c) in near termination, "insight" and "feeling"; and (d) "support" and "clarify" were mentioned frequently all across the session by the counselors. Fifth, session outcome is correlated with client perception of "support" and "self-control" in all session evaluation factors while session outcome is correlated with counselor perception of "cathart," "feeling" and "challenge." Sixth, intentions related with session outcome varied across sessions: session outcome was correlated with client perception of "support" and "self-control" in progressed session; while "cathart" and "resistance" was identified in near termination. On the other hand, session outcome was correlated with counselor report of "support" and "insight" in progressed sessions; and "feeling" in initial sessions; while "cathart" and "insight" in progressed sessions; and "feeling" in near termination.

The most significant finding of this study was session outcom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how the variables effect session outcome. It is felt by the author tha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and to improve counseling effectiveness.